

다산포럼

같이 살자

김정남
언론인

“네 말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뜻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한 번 지지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근면하게 일하고, 절약하여 자기 가을을 맑기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열 셋 짓지 짓는 사람은 이웃에 배 끓는 자 있으면 거두어 먹여야 하느니라. 백 셋 짓지 짓는 사람은 고을을 염려하고, 그보다 다른 어떤 뜻이 있겠지. 우리 집은, 집이라도 그냥 집이 아니라 종가다. 장자로 내려온 빛줄만 가지고 종가라고 한다면, 그게 무에 그리 대단하겠느냐? 그 빛줄이 저닌 책임이 있는 게야. 장자란 누구나? 아버지와 맞잡이가 되는 사람 아니냐? 아버지를 여의면 장자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자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런 장자로만 이어져 내려온 종가란 문중의 장자인 셈이다. 어른인 게지. 어른 노릇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

기고

절전소(節電所)를 아시나요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

발전소(發電所)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면 ‘수력·화력·원자력·풍력·조력·태양력·지열 따위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일으키는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전소(節電所)는 어떤 곳일까. 절전소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 아니다. 전기는 어떤 한 사람이 아끼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만큼 쓸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데 이를 ‘절전=발전’이라는 발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전력 80W짜리 형광등을 같은 밝기의 50W짜리 LED 전구로 바꾸면 30W

만큼 밭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나의 절전이 곧 타인을 위한 밭전’이 되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전소는 절전형 기기나 전기를 아끼 쓰는 생활방식도 두루 포함한다. 가정에서 대기전력만 차단해 최소 10%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전력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밭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고안한 이가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 물리학자인 에이미리 로빈스이다. 그는 2009년 미국 태입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 든 환경문제 권위자이다.

절전소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도 끊이 일부 겹친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은 ‘전기를 아낀다’는 말을 ‘절전소를 짓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전기를 아껴 쓰자’는 호소형 구호와는 뒤섞여 있다.

보통 절전운동이라 하면 큰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웬지 번거로울 것 같고 또 불편한 느낌 그리고 남 좋은 일 하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심리를 바꾸려는 발상의 전환이 곧 절전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절전소는 이처럼 전기를 절약하고 동시에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능력을 키우는 교육 효과 또한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절전소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북구는 지난 5월부터 아파트 3곳과 우산수영장 1개소 관계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전기 사용량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가운데 절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능력을 키우는 교육 효과 또한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절전소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는 특성상 한 번 생산돼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좀 더 똑똑하게 전기를 생산하고 좀 더 똑똑하게 전기를 소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핵심 개념이다.

스마트 그리드가 실용화되면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공급자는 전력을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전기의 사용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북구의 주민 절전소 운동을 비롯해 탄소은행제도와 스마트 그리드가 만나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기고

동서통합지대 성공적 조성을 기대하며

정현복
전 광양부시장

정부가 지난 2007년 해안권 및 내륙권 초광역개발정책 시행을 발표한 뒤 2010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제정돼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됐다.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로 조성할 목적의 종합계획 및 기본구상 방안이 수립되어 그동안 다각도로 추진돼 왔다.

올 들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호남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동서통합 및 지역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최대 핵심 공약으로 정해 추진이 탄력 받을 전망이어서 희망적이다.

피서지 즐기기, 가장 필요한 건 배려와 의무

피서철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더위를 피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몸과 정신에 새 힘을 얻기 위한 여름휴가. 하지만 유명 휴가지에 사람이 몰리는 민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중 세 가지를 짚어보고 싶다.

첫째, 주차문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목적지 바로 옆에 차를 대기 위해 도로변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동과 짐 운반의 편리를 위한 행동이다. 하지만 도

개발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광양·하동 공생발전 실무협의회가 2010년 구성돼 그동안 6 차에 걸쳐 양 시군을 방문하며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실천 방안을 발굴하며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 나서 환영할 일이다.

최근 광양·하동 공생발전 실무협의회는 양 시군의 미래 발전 방안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신선하고 상생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협의의 안건을 정부에 건의한다. 남해안권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성공적 추진의 열쇠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및 양 시군의 원활한 동반자적 자세 유지, 주민들의 협조 등이 역사적 사업 성과의 가능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민들의 선진의식과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절실히 시급이다.

다른 이들에 대한 예의기도 하다. 계곡에서 간혹 보이는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은, 먹고 남은 리본은 국물은 어디에 버렸을까?

셋째, 쓰레기 무단 투기. 피서철 집중되는 쓰레기는 피서지의 쓰레기 수용량을 초과한다. 때문에 피서지에 와서 발생시킨 모든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것이 좋다. 되가져가는 수고로움을 피하고자 현지에 투기하는 쓰레기는 피서자를 오염시키며 뒤에 찾는 방문객에게 피해를 준다.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악간의 수고를 감수하면 더욱 많은 이들이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피서지에서도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 ▲김성중·광주시 서구 미륵동

용된다. 누군가 정해진 책임마저 내던지는 이기적이고 무질제한 행동을 통해 완전한 편안함을 즐긴다면, 그가 내던져버린 책임만큼 다른 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직접 해결해야 한다. 자기만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의무를 잊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사회 속의 부적격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피서지에서의 에티켓이니 지켜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각자에게 부여된 만큼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이유다.

▲김성중·광주시 서구 미륵동

社說

문화수도 특별법 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조성사업을 축소하고 매년 500억 원 이상 투입될 운영비 지원 등을 없애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 지난 7월 회의를 열고, 문광부 측의 특별법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광부의 해명 등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원포럼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안에는 문화전당 중심축인 창조원과 정보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민평교류원 등 5개 원을 해체하는 대신 개관 전시업무 담당인 이영철 전시예술감독에게 이를 5개 원의 사업을 종합하도록 기획적으로 이끌어내는 철학이다.

지난 7월 이영철 전시예술감독에게 이를 5개 원의 사업을 축소하고, 매년 500억 원 이상 투입될 운영예산 지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표현해 향후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문화단체 등이 “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정부가 문화수도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수순”이라며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특별법으로 문화수도 운영체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경한다는 건 쉽지 않다. 문화전당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

여기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광부 소속기관은 정부직·차관급으로 대통령령이 임면하는데 반해 문화전당의 기관

장은 문광부장관이 임면토록 했다. 개발원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조항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격려했다.

정부는 개관 후 매년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운영예산 지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표현해 향후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를 국회에서 촉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특별법으로 문화수도 운영체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경한다는 건 쉽지 않다. 문화전당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

여기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광부 소속기관은 정부직·차관급으로 대통령령이 임면하는데 반해 문화전당의 기관

악성 댓글 광주시민, ‘일베’ 나무랄 수 있나

컴퓨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악플’(악성 댓글)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유명 정치인이나 정당, 연예인, 스포츠 스타에 대한 비방성 글로 사회가 혼탁해지고, 죄악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반사회적인 악플을 일삼는 사

람들이 광주에서도 10명 중 1명꼴에 이

른다고 하니 민주·인권·평화의 시민이

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 정보화진흥원이 전국 인터넷 이용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결과, 광주지역 네이버 즈 가운데 조사 대상의 10.5%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에 가담한 적이 있는 ‘악플러’였다고 응답했다.

악플러는 자신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을 훨씬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성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여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다.

더욱이 비방성 댓글로 인한 피해에 시달려온 광주시민 가운데 일부이긴 하지만 악플러가 존재한다는 것은 꼭 실망스럽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터무니없이 꾸아내리는 악성 댓글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왔던 광주시민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다.

올 들어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5·18을 음해하는 일간베스트(사이트)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이버에 대해 사법 처리까지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광주에도 악플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 스스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있는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

네이버들은 항상 자신도 악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근거 없는 비방을 삼가야 한다. 관련 당국도 법규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고, 예방해 품격 높은 사이버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페르세우스(Perseus)는 괴물 ‘메두사’의 목을 벤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이다.

메두사는 본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여신 아테네의 미움을 사며 카락이 모두 뺨으로 변해 버렸다. 그녀의 눈을 비비로 사립은 모두 뺨으로 변하게 하는 마력을 가졌다.

하지만 왕의 명으로 메두사를 처치해야 하는 페르세우스는 그를 아끼는 아

테네와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변한 빛나는 방패와 하늘을 나는 구두를 받는다. 그리고 거울방패를 이용해 메두사의 목을 자르는데 성공한다.

또, 페르세우스는 둘 아오는 길에 괴수(怪獸) 고래에게 제물을 바쳐진 에티오피아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해낸다. 죽은 메두사 머리를 내보여 괴물 고래를 둘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가을철 별자리 이름이기도 하다. 이맘 때 자정계면 동쪽 지평선 너머로 떠오른다. 가을 밤하늘에는 페르세우스자리 부근에 부인 안드로메다, 장인 케페우스, 장모 카시오페이아

등 그리스 신화의 한 가족이 별자리를 이루고 있다.

매년 8월 12일을 전후해 페르세우스 유성우(流星)가 쏟아져 장관을 연출한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120년 주기로 태양에 접근하는 ‘스위프트-터틀 혼성’(P/Swift-Tuttle)의 잔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새벽,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보기 위해 영광으로 간다. 비처럼 쏟아졌으면 하는 기대와 달리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별똥별은 간헐적으로 깔고리를 남기며 떨어졌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暴炎)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새벽 밤하늘은 어느새 가을별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광해(光害)로 인해 별자리나 은하수를 보기 힘든 요즘이다.

여름방학동안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 순천 천문대를 찾아 겨우·직녀 러브 스토리와 그리스 신화의 영웅 얘기 들려주면 어떨까.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無等鼓

페르세우스(Perseus)는 괴물 ‘메두사’의 목을 벤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이다.

메두사는 본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여신 아테네의 미움을 사며 카락이 모두 뺨으로 변해 버렸다. 그녀의 눈을 비비로 사립은 모두 뺨으로 변하게 하는 마력을 가졌다.

하지만 왕의 명으로 메두사를 처치해야 하는 페르세우스는 그를 아끼는 아

테네와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변한 빛나는 방패와 하늘을 나는 구두를 받는다. 그리고 거울방패를 이용해 메

두사의 목을 자르는데 성공한다.

또, 페르세우스는 둘 아오는 길에 괴수(怪獸) 고래에게 제물을 바쳐진 에티오피아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해낸다. 죽은 메두사 머리를 내보여 괴물 고래를 둘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가을철 별자리 이름이기도 하다. 이맘 때 자정계면 동쪽 지평선 너머로 떠오른다. 가을 밤하늘에는 페르세우스자리 부근에 부인 안드로메다, 장인 케페우스, 장모 카시오페이아